



2023년 9월 24일(제1159호) 연중 제25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나를 시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마태 19,30)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마태 20,16) 오늘 비유 말씀의 앞뒤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한 시간은 차이가 있었지만, 받게 되는 품삯을 똑같이 나누어줌으로써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됩니다. 하느님의 후한 마음에 대한 복음임을 알고 있지만, 일한 만큼 주셔도 불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와중 한 구절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하늘 나라는 ... 일꾼들을 사려고 ...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마태 20,1) 일꾼을 산다는 표현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일한 시간과 한 데나리온만 가지고 저울질을 하며 복음의 의미를 살피던 와중, 일꾼을 산다는 사실이 추가되며 복음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일꾼을 산다면 얼마 정도면 될까요? 만일 누군가가 나를 돈 주고 사겠다고 말하면 얼마를 부르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말한 만큼의 돈을 줄 수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마음껏 값을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게 된다면, 나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저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나는 일꾼이 될 터이니 말입니다. 많은 돈을 받은 대신 그 사람의 일꾼이 되면, 어떻게 나를 부려 먹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포도밭 주인은 일꾼들에게 봉급을 준다고 합니다.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값을 충분히 치렀지만, 일한 것에 대해서는 봉급을 준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 치른 값을 생각해 보면,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품삯이라 얼마가 되어도 큰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이 불평을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밭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마태 20,15) ‘내 것’, 그리고 ‘후함’이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자비’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이 표현으로 하느님이 담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의 깊은 뜻에 가까워지길 청하며 복음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김기수(비오로) 신부
해군교육사(해군 교육사령부) 성당 주임

제 1 특 시

이사 55,6-9

회 답 송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제 2 특 시

필리 1,20ㄷ-24.27ㄱ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특 음

마태 20,1-16

영 성 제 송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여덟 번째 시집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하고 팔주뢰와 다리주뢰의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팔과 다리뼈가 어그러졌고, 곤장을 110대나 맞아 온몸의 살이 한치도 성한 데가 없이 멍그러지고 피범벅이 되어 의식을 잃은 채 감방으로 운반되어 갔습니다.

이처럼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40명이 모두 고문을 받았는데, 모두가 끝까지 항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편태와 곤장의 고문을 받아 정신과 의식을 잃은 상태의 신자들에게 천주교를 안 믿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라고 옆에 서 있던 고문자들이 울러댔습니다. 그러면 초죽음이 되어 배교의 말을 중얼거린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즉시 자유로운 몸으로 석방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야고보도 곤장 3대를 맞을 때까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고문에 못 이겨 정신을 완전히 잃고 아무 의식이 없을 때 배교의 말이 나왔습니다. 고문자들은 야고보가 죽음에서 깨어나도록 약을 주고서 풀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심문이 다 끝나자, 관원들과 포졸들은 관청에 모여서 의논하였습니다. 그러고서 프란치스코를 감옥에서 불러내 천주교 책 한 권을 내밀면서 “여기 네가 믿는 천주교 책이 한 권 있는데, 네가 읽는 것을 우리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으니 한번 읽어 보라.” 하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마치 잘 차린 훌륭한 잔치에 초청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웃으면서 책을 펴들고 목청을 가다듬어 낭랑한 목소리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하도 열심으로, 하도 감격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가 읽는 것을 듣던 외교인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 그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조차 그렇게도 자유롭고 깨끗한 기쁨을 자아내게 하는 천주교를 자발적으로 극구 찬미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읽기를 끝마친 다음에 포졸들이 마리아에게 책을 주면서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핑계로 읽기를 거절하자 관원들은 “아니 저렇게 훌륭한 회장의 부인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니, 어떻게 된 일이나?”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천주교구 양임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하늘을 닮은 아이에게

나의 아들이!
저 파아란 하늘의
별이 되어라.

나의 딸아!
저 밤하늘에
영롱한 별이 되어라.

하늘을 닮은
나의 아이야
하늘을 살아라.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로 묘사되는 흰색이 아니라) 온통 붉은 빛의 걸옷을 두르신 채, 무덤에서 나오고 계신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중 두 명은 잠들어 있고, 한 명은 놀란 표정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무덤 뚜껑 위에는 천사의 모습이, 예수님 뒤편으로 보이는 배경의 길 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세 명의 여인이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디에릭 바우즈(1415년 ~ 1475년)
1455년경 제작
린넨천 위 수장도료,
89.9x74.3cm
노튼 사이먼 미술관,
캘리포니아 피시데니

예수님은 못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선 채로, 한 손을 들어 축복을 내리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전경에 잠들어 있는 병사의 투구에 우리가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곳의 자연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도 이 그림에 함께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것이다.

김은혜(앨리스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5주일: 히상비오로 여상민 신부

◆ 교구장 동정

- 한민고등학교 방문 및 견진성사
때·곳: 9월 24일(주일)
-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때·곳: 9월 26일(화), 서울공항 / 광화문 일대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전 8시 ~ 9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신교의 열매, 세례성사!" - "아버지와 이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 28,19)